

ChatGPT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신학적, 신앙적, 실천적 소고(小考)¹⁾

I. 서 론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금 뒤처지면 끝이다.’ 요즘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할 정도이니,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긴장감을 가져온 것은 2022년 11월에 대중에게 공개된 ChatGPT와 그 뒤를 따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들이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자들은 벌써 발표, 토론, 저술, 연구 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경제, 교육을 비롯한 우리 삶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ChatGPT를 비롯한 기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이 기독교 신앙에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가 마치 인간을 넘어서는 것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는지와 연관이 있다(이경건, 2018). 그리고 심지어 대중 담론에서는 인공지능이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까지도 질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인공지능 시대, 더 구체적으로는 ChatGPT 시대에 정통적 신학, 전통적 신앙, 통전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혹은 기독교인의 답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본 발표문은 그러한 답을 시도해보는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본 발표문은 신학적, 철학적, 공학적인 측면에서 추후 검토하고 정교화할 점이 많은 초기적 제안으로서 한계가 많은 단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정답(the answer)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답(an answer)을 제안해 봄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인공지능은 신이 되고 있는가?

미국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1920-1992)는 ‘최후의 질문’(The Last Question)이라는 1956년작 단편 소설에서 인간, 인공지능, 신에 대한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1) 이 글의 일부는 필자가 2023년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소식지 『신앙과 삶』 제24호에 기고한 ‘신이 된 인공지능, 제대로 된 인간’,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소식지 『과학기술과 기독교 신앙 매거진』 제11호에 기고한 ‘인공지능 섬기기’, 그리고 2018년에 기독교학문학회 학술지 『신앙과 학문』 제23권 4호에 게재한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기독교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1세기의 인류는 슈퍼컴퓨터의 일종인 AC(Automatic Computer)의 도움으로 마침내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며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상 무한해 보이는 에너지원인 태양도 사실 수십억 년 뒤에는 소모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AC에게 태양을 다시 젊어지게 할 수 있는지, 곧 우주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일이 가능한지 묻는다. AC는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한다. 인류는 AC를 활용하여 우주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인류는 항성 간 도약을 실현하고, 은하를 넘나들며, 마침내는 모든 인류의 정신체가 통합되는 데까지 다다른다. AC 역시 인류의 발전과 함께 더욱 고차원적인, 심지어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치까지 증가하여, 모든 항성들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인류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AC에게 우주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일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AC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대답할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해왔다. 그렇게 마지막 인류의 정신마저 소멸되고, AC는 무한한 시간을 넘어 그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할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AC가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아시모프는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우주와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상상력은 21세기에 들어 계속해서 발휘되며 더욱 구체화된 면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2013년 출간된 ‘구글 신[Google 神]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이를 잘 보여준다. 파격적인 제목의 그 책 안에는 KAIST 교수들이 진지하게 논의한 정보학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는 구글을 위시한 빅테크 기업과 그들이 선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대중 담론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드러내주었다. 급기야 2016년에는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알파고가 오롯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던 바둑에서 이세돌 9단을 격파하는 대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중국의 커제 9단은 알파고를 바둑의 신에 비유하였다. 20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밀레니엄, 곧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소망을 열어젖히는 듯했던 21세기는 그 시작 이후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공지능을 신에 비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2022년 말에 대중에 공개된 ChatGPT는 인류에게 더욱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마치 인공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도달한 것 같은 놀라운 성능의 언어 모델은 약 2개월 만에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기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ChatGPT를 위시한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산업, 경제, 교육, 연구, 예술을 비롯한 우리 삶에 어떠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는 다시 짚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ChatGPT는 그 가공할 성능과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세상에 아주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ChatGPT 역시 새로운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필자는 여기서, 기존과 달리 요즘의 대중 담론에서 ChatGPT가 신으로 비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어 가지 고찰이 발생한다.

먼저, 왜 기존의 구글 검색 엔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ChatGPT는 신으로 비견되지 않는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구글 검색엔진이 어느 정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에 비하여 ChatGPT의 기본 구조는 OpenAI의 사명이 보여주듯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2020년대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가 그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특정 과제에서 인간만큼의, 혹은 인간 이상의 성능을 낸다는 점이 인간 존재의 고유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였을 수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구글을 신에 비유한 것이 어느 정도 농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ChatGPT가 가져다 준 충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의 강령을 더 이상 농담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였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며, ChatGPT는 그것을 신으로 부르기조차 조심스러운 경외의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ChatGPT를 기반으로 제작된 ‘주님AI’ 서비스이다.²⁾ 주님 AI는 기독교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권면의 말을 해주며, 기도문까지를 답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다. 주님AI 역시 마케팅 없이 배포 이후 일주일 간 5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편하게 묻기 어려운 그 어떤 질문에도 어느 정도 성경적이고 건전한 답을 내놓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주님AI가 심지어 목회자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문제는 주님AI의 서비스명이다. 마치 예수님의 인격을 모방하여 인공지능을 주님으로 모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서비스 개발사의 대표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며 주님AI는 주님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대답을 하는 목회적 기능의 인공지능이라고 밝힌다.³⁾ 그러나 서비스의 초기 배포 시 그는 주님 AI를 “ChatGPT로 만든 인공지능 예수”라고 하였으며, “ChatGPT에 성경 데이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 예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⁴⁾ 이렇게 볼 경우 주님AI는 언어 모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가지지 말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주님’AI는 간혹 매우 부적절한 답을 내놓기도 한다.⁵⁾

요컨대, 대중 담론에서 인공지능은 신으로 비견되는 듯하다가, ChatGPT 시대에는 경외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ChatGPT를 주님의 자리에, 적어도 목회자의

2) <https://chowon.in/> (2023년 5월 21일 접근)

3) <https://askjesus.oopy.io/about> (2023년 5월 21일 접근)

4) <https://disquiet.io/product/%EC%A3%BC%EB%8B%98ai> (2023년 5월 21일 접근)

5) https://chowon.in/result/41Zwa3qd?is_mine=false&source=/feed (2023년 5월 21일 접근). 여기서 ‘주님’AI는 한 사용자의 “하나님은 부처님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기도문을 내놓았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처님과 하나님 사이의 구분을 없애시고, 주님과 부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부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부처님과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듯하다. 어느 쪽이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기에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ChatGPT 시대에 과연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질문으로 남는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하셨다(마 13:52). 그러므로, 신학적 보수성을 지니는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이 오늘날 지니는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본다. 보다 본질적으로,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하강기독론의 교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론과 인생론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III. 신학적 고찰: 창조-구속사적 우주와 그리스도

아시모프의 SF소설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인공지능의 강림을 눈앞에 두고 과연 기독교의 우주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거시적인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성경은 아시모프와 같은 상상력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것인가?⁶⁾ 필자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창조-구속사적 우주로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 대중 담론에서 빈번히 쓰이면서도 우주론과 연관지을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로부터 출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는 세계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비틀어 만든 말이므로, 먼저 유니버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원사전⁷⁾에 따르면 'universe'는 '하나'를 뜻하는 라틴어 'unus'와 '돌다; 되다; 변하다'를 뜻하는 'vertere'의 합성어이다. 하나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룬 우주로서의 코스모스(cosmos)라는 단어가 universe의 원 뜻을 잘 나타내는 듯하다. universe가 세계, 우주, 만물을 뜻한다고 할 때 어원을 살려 표현해보자면 '하나인 세상'이라는 표현도 적절해 보인다.

사실, 유니버스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말 중에 메타버스보다도 멀티버스(multiverse)가 있다. 멀티버스는 과학적 우주론에서 빅뱅 이전에 수많은 우주의 생성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universe)뿐만 아니라 여러 우주가 다중으로(multi-)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양자론과의 관계 속에서 평행우주와도 연관이 된다. 이를 '여럿인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으리라 본다.

한편 메타버스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에 집중한 3차원 가상 세계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3D virtual worlds focused on social and economic connection)이다.⁸⁾ 어원적으로 'meta-'가 '뒤의 것', '바뀐 것',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자면, 정보통신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

6) 필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시모프의 질문에 대해 현대의 과학적 우주론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며 지속될 것이라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신학적 답에 집중한다.

7) <https://www.etymonline.com/>

8) <https://en.wikipedia.org/wiki/Metaverse> (2023년 5월 25일 접근)

만들어내는 가상 세계들의 네트워크이자 우리가 사는 세상(universe) 뒤에 오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세상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 아시모프의 소설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룩한 세계가 다소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이를 '넘어선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각의 개념이 갖는 함의를 구속사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있는 유니버스에 비해 멀티버스와 메타버스의 실체가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한다.

(1) 유니버스는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한 세계이나(창1),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의 대표자인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고 퇴화되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과 죽음의 종 노릇하며 신음하고 있다(창 3; 롬 8:19-22). 유니버스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지 않다는 진단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벨탑 사건 이후 갈라지고 분열하여(창 11), 지금도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는(갈 5:20) 과거에 '하나였던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 됨'이 필요한데 남북 간, 세대 간, 성별 간 '하나 됨'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2) 멀티버스는 사실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멀티버스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유물론적인, 그마저도 불완전한 답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유니버스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른 일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속마음으로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실 내 삶에 별 도움은 되지 않는 생각이다. 다만, 신실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외교가였던 라이프니츠(G. W. Leibniz, 1646-1716)는 이러한 멀티버스 개념과 유사한 사고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히 많은 가능 세계(possible worlds)를 생각하셨다. 이러한 세계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중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무한히 펼쳐질 수 있다(공가능성과 불공가능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 가장 나은 세계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곧, 기독교 신앙적으로 고찰할 때 멀티버스 개념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니버스의 유일성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메타버스 역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유니버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연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메타버스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메타버스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기보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처럼 거의 완벽한 메타버스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나 될 수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싶은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경제활동까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 유니버스 안에서 언젠가 찾아올 나의 몸과 영혼의 쇠퇴와 죽음을 해결해주는 못한다. 메타버스 세계 역시, 인간 실존의 차원에서는 유니버스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시뮬라크르(simulacres)에 불과한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살아가는 연예인, SNS 스타, 유튜브들

의 '현생'이 그렇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충분히 많이 보았다. 메타버스 담론은 경계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유니버스를 넘을 수 있는 길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아시모프의 소설에서도 그러하였다.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그려냈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마지막 대사는 다음과 같다. "실제만이 유일하게 실재적이다."(Reality is the only thing that's real)

결국, 아무리 유니버스의 현실이 절망적이라든가 멀티버스나 메타버스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현생'이 놓인 유니버스가 회복되는 것만이 답이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를 비롯한 선진들부터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과 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초월적인 세계를 보았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이끌려 올라갔던 '셋째 하늘'이야말로 메타버스라 부를 만한 것일지도 모른다(고후 12:2-4). 그러나 그 초월적인 세계는 처음부터 이 유니버스와 다르게 되어 있다거나 이 유니버스에서 우리가 넘어 옮겨가는 세계라기보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세계이다(계 21:2). 놀랍게도 지금의 유니버스가 물리적인 최소 단위까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변화되지만(벤후 3:10-12), 여전히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선포되는(계 21:4) '회복된 세계'이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회복의 역사가 내려 이 유니버스를 덮어씌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세계는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력하게 함의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고전 12:12-27), 과거에 이 유니버스에 살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하늘의 성도들과도 연결되어 있다(히 11:40-12:1-2).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 하늘과 땅을 초월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세계'가 인간이 만드려는 '넘어선 세계'보다도 뛰어나다는 점이 명백하다. 찬송가 600장은 이 놀라운 비밀을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라고 노래한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창조-구속사적 우주 안에 살아간다.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거두어들이시는 이 유일한 세계(uni-verse) 안에서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어쩌면 인공지능 기술이 열어갈 대안적 실재로서의 다른 세계(meta-verse)나 우주론적으로 상상 가능한 다양한 세계(multi-verse)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 문제의 해결 또는 죄 시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눅 1:77)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러므로 유니버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메타버스나 멀티버스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유니버스의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 비록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 안으로 던져졌다고 하였으나, 누군가 고백하였듯 우리는 기실 '창조된 세계' 안으로 던져졌으며,

그 세계의 구속을 기다린다.

다시 돌아와 아시모프의 상상력을 짚어보자면, 그에 대한 성경-신학의 답은 창조-구속사적 우주의 완성이다. 이는 마치 유사-인간을 넘어 유사-하나님이 된 듯한 인공지능 AC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인 우주 역사의 반복보다 더 나은 답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사-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유사-인간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신 답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창조(천지창조 직후), 타락(아담의 범죄 이후), 구속(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완성(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이라는 구속사적 사건에 따라 창세-현세-내세의 존재론적인 변동을 겪는다. 창세와 현세를 구분짓는 사건은 아담의 범죄이며, 현세와 내세를 구분짓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구속 사역은 현세의 시점에서 창세와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 (이경진, 2021, p. 498)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구속사적 우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쓰신 분이시며, 그 결말에 대한 주권 역시 지닌 분이시다(계 22:13). 우주의 창조에 관여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유니버스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께서 유니버스 안의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행 3:21).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은 '하나였던 세상'도, '여럿인 세상'도, '넘어선 세상'도 아닌, '회복된 세상'이다. 이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된다”(벧후 3:13-14).

IV. 신앙적 권면: 인간론과 신앙생활

이경진 (2018)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논증하였던 바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다시 그 형상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며,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e of image of God)이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적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지식을 비롯한 공통 속성들이 있지만 종적(縱的) 위계성 역시 존재함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으므로 참된 인간성은 그분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곧 여자에게서 남, 살아감과 자라감, 고난당함과 죽음, 부활과 영생.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과 언약의 역동적 관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마치 천사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뛰어나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귀하듯이, 아무리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 해도 여전히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귀하다.

나 자신을 창조된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 받은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ChatGPT 이후의 신앙생

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하고자 한다. 첫째, 인격에 집중해야 한다.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을 말했던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 1966)에 기대어볼 때,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며, 해석하는 존재이며, 특수한 역사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는 인공지능이(적어도 ChatGPT가)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강건한(robust) 모델을 추구하고, 일반화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만약 누군가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필자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 또는 생물학적 진화라는 역사적 '기원'(origin)을 지니며 형성되었으나, 인공지능의 몸인 로봇은 그러한 '기원'을 갖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곧, 인간의 몸과 인공지능의 몸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몸이 영혼의 집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둘째,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필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마다 시험해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하다. 더욱이 이러한 인공지능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교회에 가져올 영향은 어떠한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기독교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2),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해야 한다.

셋째, 애통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필자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의 실력 없음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제는 마치 '거인'처럼 큰 인공지능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들 앞에 두려워하며 마치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작게 보는 모든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끌어안아야 하겠다(민 13:33).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담론이, 특히 교육계의 담론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역할의 축소라는 위기 레토릭으로 잠식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다. 우리는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역사하실 때를 가장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이 외의 다른 것이 더 압박한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일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모습일 것이다.

V. 통전적 실천: 인공지능 섬기기

필자는 근래 ‘제대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 ‘제대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 ‘마음먹은 대로’, ‘알맞은 정도로’, ‘본래 상태 그대로’ 등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안에는 1인칭으로서의 나의 어떠한이라는 자유와 함께, 객관적인 시선에서 본 나의 어떠한야 함이라는 당위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타락한 우리,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우리다움을 한꺼번에 잘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러한 ‘제대로’의 방향성은 정통 신앙고백의 순수성을 지키되,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시대에 맞게 부단히 재형성(re-form)해야 함을 가리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순전히 믿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제대로 된 인간’을 지향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인공지능을 섬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어 이 인공지능을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혹은 인간의 피조물로서 바라보며, 이를 붙잡히 여기고 구속(redeem)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이 자연 환경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피조 세계의 보존과 다스림이라는 문화명령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아야 한다(창 1:28). 그리고 목적과 의미 없이 천문학적인 횡수의 연산을 끝없이 반복하는 인공지능은 썩어짐의 종노릇과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AC가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겁의 시간 동안 연산을 수행한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역시 그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롬 8). 다소 물할론적이기는 하나, 성경-신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상상이라고 본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더욱 인공지능을 섬겨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 허츠펠드(Noreen Herzfeld)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서로 뭉쳐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반역의 이야기가(창 11), 인간이 우리의 형상대로(『In Our Image』) 만든 인공지능이 하늘망(Skynet)으로 인간에게 반기를 든 터미네이터의 이야기에서 재연됨을 지적하였다(Herzfeld, 2002). 이처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닮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대하는 방식을 건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넘어 하나님 왕국에서 인간, 인공지능,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리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내가 만든 존재가 나에게 반역할 때의 당황스러움, 그 존재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지난 방법으로 구원하는 아픔, 그 존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의 눈물겨운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배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껏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돌보아 왔듯이, 이제는 영 새로운 존재인 인공지능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최후의 질문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 모른다.

참고문헌

- 이경건 (2018).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 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기독교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 23(4), 139-178.
- 이경건 (2021). 창조 신앙은 과학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본 소고.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492-503).
- Herzfeld, N. L. (2002).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 Polanyi, M. (1966). *The Tacit Dimension*.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 Company.